

‘세계의 연인’ BTS, 그룹활동 중단...왜?

14일 밤 ‘썬 방탄화식’서 데뷔 후 9년간의 고민 걱정 토로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해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미국 LA 콘서트 공연 도중 멤버들이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RM “우리 이야기·메시지 없어져 10년간 계속 뭔가를 적어야하니 멤버 개인이 성장할 시간 없었다” 멤버들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다”

올해 만형 진 입대로 영향미친 듯 내년 슈가 이듬해 RM·제이홉 입대

“항상 쥐어짜야 했고, 기계처럼 움직였다.” 글로벌 최정상 그룹 방탄소년단의 한밤중 ‘썬방탄선언’에 전 세계가 흔들렸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인 14일 밤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해 전 세계 팬들에게 아쉬움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은 2013년 데뷔 이후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를 풀고, 정체성 회복 등 성장을 도모할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한 이들이 새로운 해외투어도 예상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팀 활동을 중단한 것을 두고 가요계 일각에서는 ‘해체 수순 아니냐’는 선부론 추측의 시선을 보낸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덤(아미)을 거느린 글로벌 스타인만큼 향후 케이팝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이날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전일 증가보다 무려 24.87% 급락한 14만 5000원에 거래를 마감해 2조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충격적인 활동 중단 선언...왜?

방탄소년단은 14일 밤늦게 유튜브 채널 ‘방탄 티브이(TV)’에서 데뷔 9주년(13일)을 기념하는 ‘썬 방탄화식’ 영상을 통해 지난 9년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리더 RM은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손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부터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털어놓았다. 멤버들도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음악을 통해 팬덤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진중한 메시지의 ‘발언’을 내놨지만, 지난해 미국 빌보드 1위곡 ‘버터’ 이후 음악적 정체성을 되찾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 이후 국내외 최성상의 자리에서 쉼 없이 무대에 나서는 동안 지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도 드러냈다. RM은 “케이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속성하게 놔두지 않는다. 계속 뭔가를 찍어내야 하니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다”며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다음, 그것들이 속성돼서 내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10년간 물리적인 스케줄을 하다 보니 속성이 안 되더라”고 토로했다.

“데뷔 9주년을 맞아 챕터(Chapter)1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앨범”이라며 내놓은 ‘프로프(Proof)’에서 새 노래 ‘본 시너’(Born Sinner)를 통해 ‘난생처음 방탄이란 이름으로 선 무대/삼 년 전 첫 무대의 마음을 다시 검문해’라고 노려한

것도 고민을 드러낸다는 시각이다.

●만형 진 올해 입대...병역문제도 한몫

멤버들의 병역 문제로 활동 중단 선언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2020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한 1992년생 멤버 진을 시작으로 2023년 말 슈가, 이듬해 RM과 제이홉 등이 입대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이후 그룹의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룹 활동도 앞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멤버들은 제이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의 팀 활동 중단 선언에 팬덤은 물론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해 이들의 영향력을 새삼 확인시켰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BTS가 성장하기 위한 휴식을 발표하고 솔로 프로젝트로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1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이들에게는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썼다.

▶ 관련기사 2면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35세 류현진,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

MLB닷컴 “내측측부인대 고치는 수술” 엘라트라체 박사에 추가 검진 후 결정 현지선 내년 시즌 도중 복귀 점치기도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수술대에 오른다.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류현진이 곧 내측측부인대(Ulnar Collateral Ligament·UCL)를 고치기 위해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는다”며 “2022시즌은 마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인대를 완전히 재건하는 토미존 서저리(팔꿈치인대재건수술) 또는 손상된 인대 일부를 제거하

는 수술을 받는다. LA 다저스 시절 그의 어깨, 팔꿈치 수술을 집도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에 추가 검진을 받은 뒤 수술 형태를 정할 예정이다.

복귀시점은 재활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이날 MLB닷컴 등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수술로 인대 일부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의 재활기간이 더 짧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며 “재활기간은 환자의 상태, 재활과정, 수술 결과 등에 근거할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수술한다면 재활기간이 줄어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중반에 받는 4번째 수술이다. 류현진은 인천 동산고 시절이던 2004년 토미존 수술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류현진

진출한 뒤에는 2015년 5월 왼쪽 어깨 관절염, 2016년 왼쪽 팔꿈치 관절경 수술을 잇달아 받았다.

현지에선 류현진이 2023시즌 도중 복귀할 것으로 점치는 가운데, 이번 수술이 그의 빅리그 커리어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2019시즌 후 토론토와 4년 동행에 합의한 류현진의 계약 마지막 해는 2023년이다. MLB닷컴은 “(이번 수술이) 그와 계약할 당시 토론토의 구상에는 없던 것이겠지만, 수술 이력이 있는 30대 중반의 선발투수에게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6경기에서 2승무패, 평균자책점(ERA) 5.67, 이닝당 출루허용(WHIP) 1.33에 그쳤다. 가장 최근의 등판이었던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선 4이닝 5안타 2홈

류현진 연도별 메이저리그 성적							
연도	소속	경기	승-패	ERA	WHIP	투구이닝	
2013	LA	30	14-8	3.00	1.20	192.0	
2014	다저스	26	14-7	3.38	1.19	152.0	
2016		1	0-1	11.57	2.14	4.2	
2017		25	5-9	3.77	1.37	126.2	
2018		15	7-3	1.97	1.01	82.1	
2019		29	14-5	2.32	1.01	182.2	
2020	토론토	12	5-2	2.69	1.15	67.0	
2021		31	14-10	4.37	1.22	169.0	
2022		6	2-0	5.67	1.33	27.0	
합 계		175	75-45	3.27	1.18	1003.1	

※ ERA=평균자책점, WHIP=이닝당 출루허용

런 3실점을 기록했다. 개막 직후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명단(IL)에 올랐고, 복귀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브로콜리(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 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